

# ‘옥수수(玉蜀黍)’와 ‘강냉이’의 어휘형성과 차용양상 연구

권시현  
민스크 국립언어대

**Title:** *The Research of Word Formation Process "Maize" in Korean Dialect*

**Author:** *Kwon Si-Hyun, Minsk State Linguistic University, Minsk, Belarus*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delve into the word formation process of ‘Oksusu(maize)’—a word having a similar meaning to the word ‘Kangnaengyi(corn)’—that seemed to be derived from the 17th ~19th Century Korean Language. Based on the inquiries into <A source book of Korea dialects>, the word ‘Oksusu’ is dispersed within the dialect of the central part of Korea, while the word ‘Kangnaengyi’ is spread within that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Although it is assumed that the order of word formation correlates with the dialect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dea that word 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eriod of dialect distribution. Thus, it is indispensably important to examine more into the objectivity of the order of word formation through bibliographic data. Apart from criticizing the existing debate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word ‘Oksusu’ and ‘Kangnaengyi’, this dissertation also proposes a possibility of a new process of word formation.*

**Keywords:** *word formation process, borrowed word, the origin of maize in Korean dialect, etymology of maize in Korean*

**주제어:** 어휘형성, 차용어, ‘옥수수’계 방언의 기원, ‘옥수수’의 어원

## 1. 서론

옥수수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입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sup>1</sup> 세조 때 편찬된 농업서 《금양잡록(衿陽雜錄)》<sup>2</sup>(1492)에 옥수수와 관련된 어휘가 나타나지 않

---

<sup>1</sup> 옥수수의 원산지는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 북부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남미에서 재배되던 옥수수가 15세기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에 전해지고, 이후 포르투갈을 거쳐 인도와 중국에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유입은 중국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2</sup> <衿陽雜錄>(금양잡록)은 조선시대 학자 강희맹(姜希孟)이 쓴 농서(農書)로 그

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옥수수가 재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옥수수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어유해(譯語類解)》(1690)에서 부터이다. 농업서는 이보다 후대인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문헌에 등장하기 이전 시기부터 한반도에서 옥수수가 재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새로운 용어가 문헌에 등장하는 시기가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는 시기보다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옥수수의 존재가 한반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최소한 17세기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옥수수와 동일한 의미로 강냉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방언자료집(韓國方言資料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냉이는 중세시기의 문헌을 비롯하여 근대시기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개화기 시대에 편찬된 사전류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대개 동일한 사물에 대한 명칭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방언차이로 해석한다. 그러나 방언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방언간의 어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옥수수와 강냉이의 어휘형성과 차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새로운 문물은 대개 새로운 어휘와 함께 유입된다. 현대국어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어휘에 영어 차용어가 많은 것처럼 중세, 근대국어 시기에도 새로운 문물은 당시 사용되던 용어와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다. 옥수수가 처음 등장할 당시 옥수수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물이었다. 이것이 다른 나라를 통해 유입되었다면 그 나라에서 사용되던 용어와 같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먼저 방언간 비교를 통해 강냉이와 옥수수의 어휘 분화를 지역별로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문헌에서 나타나는 ‘옥수수’와 ‘강냉이’라는 명칭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주변의 언어에서 옥수수와 관련된 용어가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옥수수와 강냉이의 어휘 차용과정과 형성과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내용은 농가곡품(農家穀品)·농담(農談)·농자대(農者對)·제풍변(諸風辨)·종곡의(種穀宜)·농구(農謳) 등 6개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농가곡품에서는 각 작물(쌀·맥류·서속류·두류 등)의 품종(합계 80종)별로 이삭과 열매의 형상·색깔, 환경에 대한 적응성, 수확기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벼의 품종명이 거의 3분의 1이나 되어, 벼농사[水稻作]가 주식량작물 재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벼 품종 중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도입된 듯한 것들도 있어, 당시 외국과 기술교류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 2. 방언에서 나타나는 형태

옥수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옥수수를 일컫는 명칭으로 ‘옥수수’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휘만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한국방언자료집》을 보면 옥수수와 관련된 어휘는 크게 ‘옥수수계’<sup>3</sup>와 ‘강냉이계’<sup>4</sup>로 구분된다. 현대 국어 화자의 의식속에서 ‘옥수수’와 ‘강냉이’는 서로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된다. 즉 ‘강냉이’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일컬을 때 사용하고, ‘옥수수’는 알이 떨어지지 않은 전체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5</sup> 그러나 《한국방언자료집》에는 이 두 계열의 어휘가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통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한 명칭이 두 계열로 나뉘어 존재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두 어휘의 형성과정과 관계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계열의 어휘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생성시기가 달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두 어휘가 차용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여 차용시기와 차용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옥수수계’ 어휘와 ‘강냉이계’ 어휘는 생성과정이나 차용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의 결과인 것이다. 이들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계열 어휘의 사용 분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언자료집》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방언지도를 그리면 두 계열 어휘의 방언구획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나는 옥수수계 어휘의 분포이다.

### 2.1. 옥수수계

옥수수계 어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경기, 강원, 충남, 충북)에서 “옥수수, 옥수꾸, 옥수시, 옥소시, 옥쉬시, 옥시끼, 옥시기, 옥수깽(뽕이)”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옥수수계 어휘들은 [옥+수수]의 형태로 분석된다. ‘옥수수’의 방언형은 두 번째 음절이 후설모음(ɪ, ʌ) 계열 어휘와 전

<sup>3</sup> ‘옥수수계’ 어휘란 방언에 따라 [옥수수], [옥시시], [옥쭈시] 등으로 실현되는 ‘옥수수’와 유사한 형태의 어휘를 의미한다.

<sup>4</sup> ‘강냉이계’ 어휘란 [강냉이], [강냉수끼], [강냉], [강냉수꾸] 등 ‘강냉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를 의미한다.

<sup>5</sup> 현대 국어 화자(서울 지역)의 인식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옥수수’는 알이 떨어지지 않은 그대로를 가리키는 것은 동일하나, ‘강냉이’는 튀긴 옥수수(俗稱: 뽕튀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강냉이’와 ‘옥수수’가 동의어로 사용되다가 의미의 명료화를 위해서 ‘강냉이’의 의미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의미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설고모음(ㄹ, ㄱ) 계열 어휘로 나뉜다. 즉 “옥수수, 옥썬수, 옥수시, 옥소시”가 한 계열이고, “옥시시, 옥취시, 옥시끼”가 다른 한 계열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음절이 후설모음인 어휘는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설모음 계열의 어휘가 분포되어 있다. ‘옥수수계’ 어휘는 대체로 ‘옥시기/옥시끼’와 같은 전설모음 계열의 어휘 분포가 넓은 편이다. 이 형태는 강원지역을 기점으로 경기 및 충북의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있다. 그리고 ‘옥수깽이’라는 형태가 충남 북부 지역에 군집되어 나타나는 특이한 분포 현상을 보인다.

‘옥수수 계열’의 어휘에는 ‘옥수꾸’와 ‘옥시기/옥시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이한 음운 현상이 드러난다. 후설모음 계열과 전설모음 계열 모두에서 세 번째 음절에 [k]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간에 보이는 [k]는 “팔/팔끼, 무/무끼, 여우/여끼, 모래/물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동일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수수’에서 [k]가 나타나는 ‘수꾸, 수끼’의 형태는 경북 지역과 강원 영월, 정선까지 확대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수꾸, 수끼’의 분포지역과 ‘옥수꾸, 옥시끼’ 등의 분포 지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 어휘의 방언분포가 서로 다른 이유는 지역별로 각자 새로운 어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옥수수’에서 보이는 어간의 [k]는 이미 존재하는 ‘수수’의 변화형에 각 지역별로 접두사 ‘옥(玉)-’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로 생성된 것이 아니다. ‘옥수수’라는 이미 완성된 어휘 형태로 전파, 확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결국 어간에 나타나는 [k]는 ‘옥수수’라는 단일한 형태로 전파되면서 ‘수수’의 형태변화에 유추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小倉進平(1944:193-198)은 ‘옥수끼’의 ‘끼’에 대하여 ‘-k'i, -k'u’가 결합되는 것으로 ‘-끼’를 접사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리고 ‘수수’<sup>6</sup>는 중국어 차용어가 아닌 몽고어 ‘sisi’, 만주어 ‘shushu’를 차용한 어사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곽충구(2000:1142)는 ‘수수’의 어원을 기원적으로 ‘슈-’과 같은 어간의 일부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변이형을 보면 ‘수수’는 중국어 차용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자음은 지역에 따라 변이형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수’가 중국 한자음 ‘蜀黍’를 차용한 것이라면 방언형에서 나타나는 어간 [k]를 설명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sup>6</sup> 小倉進平(1944:194)는 ‘수수’의 어원을 ‘垂穗(수수)’의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진호 역(2009:228)에서는 이 사람을 정약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약용의 <아언각비(雅言覺非)>에 ‘蜀黍誤翻爲垂穗’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 2.2. 강냉이계

강냉이계 어휘는 한반도의 남부지역(경남, 경북, 전남, 전북)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모두 나타난다. 그 형태는 “강냉이, 짱냉이, 강냉, 강냉구, 강냉수끼, 강냉수꾸, 강냉대죽<sup>7)</sup>”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강냉이는 ‘강냉이’ 계열이 거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그 형태가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강냉’이라는 형태가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 안정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고, ‘짱냉이’처럼 어두움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예가 전남, 전북 지역에서 꽤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강냉이’는 ‘강냉수끼, 강냉수꾸’ 등을 통해 [강냉+수수]로 분석된다. 이 분석을 토대로 ‘강냉이’는 [강냉(냉)+이]로 분석이 가능하다. 대부분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는 강냉이계 어휘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전남의 남부 지역에서 ‘옥소시/옥쉬시’가 섬과 같은 형태로 분포를 이루고 있는 현상은 매우 특이하다. 경남, 경북 지역에 ‘강냉수끼’형은 단 세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함경북도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평안도 방언은 철저히 ‘강냉이’계열로 실현된다.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강냉가루, 강냉떡, 강냉쌀, 강냉수염’ 등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모두 옥수수를 의미하는 ‘강냉’과 결합된 복합어이다. ‘강냉’이 ‘강남(江南)’에서 음운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라면 위 어휘들은 음운변화가 적용된 형태로 복합어가 형성되는 다소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다. 형태소 결합시 발생한 음운변화가 새로운 어휘 형성에 그대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례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길쭉한 모양의 쌀’을 ‘안남미(安南米)’라고 하는데, 언중에서는 ‘알람미’라고도 부른다. ‘알람미’의 ‘알람’은 ‘베트남’을 의미하는 한자어 ‘안남(安南)’의 변이형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안남어, 안남 산맥, 안남미’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강남’의 변이형 ‘강냉’이 새로운 복합어 형성 요소로 작용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 ‘안남’의 변이형 ‘알람’도 ‘알람어, 알람 산맥’ 등의 새로운 어휘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어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된 복합어들은 ‘강남’에서 음운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또한 [강냉+이]에서 접미사 [+이]를 제외한 ‘강냉’은 원래 ‘중국’을 의미한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다. 하지만 《조선말대사전》의 등장하는 어휘들에서 ‘강냉’은 ‘옥수수’로 의미가 대체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어휘들은 ‘중국가루, 중국떡, 중국쌀’의 의미가 되므로 ‘강냉’은 본래 의미가 아닌 ‘옥수수’로 의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 ‘강냉’의 의미가

<sup>7)</sup> ‘강냉대죽’형은 제주지역에서만 나타나고, ‘강냉대죽’과 ‘강냉대축’으로만 나타난다.

‘옥수수’로 대체된 이러한 복합어 형성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 2.3 기타(唐-계열)

최학근(1978:1151)이나 小倉進平(1944:193-198)에는 ‘옥수수’가 ‘옥수수계’나 ‘강냉이계’ 어휘가 아닌 제 3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일부 함경도 지역과 중국 연변 지역 등에서 ‘옥수수’가 ‘당수꾸, 당쉬’ 등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이다. ‘당수꾸, 당쉬’는 [당(唐)+수수]의 형태로 분석된다. 즉 ‘수수’는 어형변화에 따라 ‘수수, 수꾸, 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접사 ‘당(唐)-’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小倉進平(1940)에 따르면 함경북부의 극히 일부 지역과 함북의 동부 지역에서 고구마를 ‘당감자’, 성냥을 ‘당항, 당성냥’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서 유래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당쉬, 당수꾸’는 ‘중국에서 온 수수’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결국 ‘당(唐)-’ 계열의 어휘는 ‘옥수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수수’보다 나중에 형성된 어휘임을 밝혀주는 좋은 예가 된다.

### 2.4 “옥수수”와 “강냉이”의 어휘형성 관계

《한국방언자료집》을 보면 ‘옥수수’계 어휘는 주로 중부지역에서 사용되고, ‘강냉이’계 어휘는 주로 남부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국방언지도》에서는 옥수수를 일컫는 단어로 ‘강냉이’가 대체로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다가 ‘옥수수’라는 새로운 어휘가 유입되면서 중부지역에서부터 어휘 확산 과정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방언지도》에서 추정한 것처럼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함께 새로 형성된 어휘가 중부방언에서부터 전파, 확산의 과정을 겪는다는 가정을 수용하면 이와 유사한 다른 어휘도 존재하리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방언자료집》에는 ‘옥수수’와 유사한 방언구획을 갖는 어휘로 “벼”가 존재한다. 벼는 ‘벼’ 계열과 ‘나락’ 계열로 구분되는데 방언 구분선이 비교적 명확하여 한국어 방언을 남북으로 구획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언 구획을 보이는 “벼”도 기본적으로 ‘나락’이라는 어휘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다가 ‘벼’계 어휘가 유입되면서 확산되는 양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분포양상이 적고, 사용되는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어형은 항상 신형어휘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휘 확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어휘 확산과정이 아닌 어휘 소멸의 과정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방언의 분포만으

로는 새로운 어형의 형성 시기나 형성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결국 새로운 어휘의 형성이나 차용의 선후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문헌상의 등장 시기를 토대로 하는 것이 방언분포를 통한 것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 3. 문헌상에서 나타나는 형태

#### 3.1 새로운 어휘 '옥수수'의 차용과 생성

옥수수는 현대 중국어로 '玉米[yùmǐ]' 또는 '包米[bāomǐ]'라고 한다. 그러나 옥수수가 유입될 17세기 무렵 중국에서는 “唐黍, 玉高粱, 玉蜀黍, 玉秫, 稷唐”등으로 불렸다. (1)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나타나는 옥수수와 관련된 곡식 어휘 자료이다.

- (1) 가. 江陵府大嶺山竹實, 與麥同熟, 穗如黍實如麥, 粘如薏苡, 味如唐黍。

(강릉부 대령산의 대나무에 열매가 열어 보리와 함께 익었는데, 이삭은 기장과 같고, 열매는 보리와 같고, 차지기는 율무와 같고, 그 맛은 수수와 같다.)

<太宗 20 卷, 10 年>(1410 丙寅)

- 나. 則以忠清道及左道完邑穀種, 勿論稻黍、稷粟唐黍、大·小豆, 推移題給。

(충청도와 좌도(左道) 중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읍의 곡식 종자를 벼·기장·피·조·수수·콩·팥을 막론하고 옮겨다가 제급하고.....)

<宣祖 46 卷, 26 年>(1593 癸巳)

- 다. 田穀則只是黃豆, 無黍稷唐豆等雜穀

(밭곡식은 그저 누런 콩뿐이고 기장·피·수수 등의 잡곡은 없기 때문에.....)

<正祖 38 卷, 17 年>(1793 癸丑)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唐黍, 玉高粱, 玉蜀黍, 玉秫, 稷唐”등 옥수수와 관련된 어휘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직 ‘唐黍’와 ‘稷唐’만 등장할 뿐이다. ‘唐黍’는 조선왕조실록에 총 29 회, ‘稷唐’은 정조실록에 1 회 등장한다. 그러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옥수수 관련어휘들은 모두 ‘옥수수’가 아닌 ‘수수’를 지칭한다. 중국에서 “唐黍, 玉高粱, 玉蜀黍, 玉秫, 稷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던 ‘옥

수수'가 한국에서 언제부터 “옥수수”라는 고정된 형태<sup>8</sup>로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자. (2)는 옥수수로 표기된 자료가 보이는 문헌들이다.

- (2) 가. 玉蜀蜀 옥슈슈 <譯語類解下 9b>, <蒙語類解下 38a>
- 나. 玉蜀黍 옥슈슈 <廣才物譜:穀稷 1b> <穀稷 1a>
- 다. 玉秫秫 옥슈슈 <韓佛字典 53>
- 라. 玉秫 옥슈슈 <漢清文鑑>, <韓英字典>
- 마. 玉林 옥슈슈 <方言類釋:戍部方言 26a>

(2 가)는 «역어유해(譯語類解)»와 «몽어유해(蒙語類解)»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玉蜀蜀’과 같은 표기형식은 «섬서통지(陝西通志), 43»에도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山陽縣志:玉蜀秫,一名番麥,一名玉米,有白紫藍之不同色”.<sup>9</sup>

(2 나)는 «광재물보(廣才物譜)»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에도 옥수수는 ‘玉蜀黍’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은 다음과 같다.

“[釋名]玉高粱, [集解]時珍曰,玉蜀黍,種出西土,種者亦罕,其苗葉俱似蜀黍而肥矮,亦似薏苡苗”.

그런데 ‘玉蜀黍’의 한자 구성은 ‘나라이름 蜀(촉)’字와 ‘기장 黍(서)’字로 되어 있다. 이를 축자적(逐字的)으로 해석하면 “蜀나라의 기장” 정도가 된다. 물론 ‘기장’과 ‘수수’는 서로 다른 곡물이지만 외견상 매우 유사하여 일부 방언에서는 이 두 어형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2 나)에서 사용된 ‘나라이름 蜀’자를 단순한 음차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한자 ‘蜀’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蜀黍’를 단순히 음차로 보고 한자음 [shǔ]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shǔ]에 해당하는 수많은 한자음중에서 유독 ‘蜀’자가 사용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한자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어 사전에서 ‘蜀’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대개 쓰촨(四川)지역과 관련된 것이 많다.

<sup>8</sup> 17세기 무렵에 사용되던 다양한 중국어 어휘 속에서 ‘옥수수’라는 특정한 어휘가 한국어로 유입된 원인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당시 가장 세력이 있었던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어 어원 사전과 방언사전 등의 비교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sup>9</sup> 본고의 한자와 관련된 내용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를 참조하였다.



(3) 蜀锦: 쓰촨(四川) 특산인 채색비단.

蜀绣: 쓰촨(四川) 자수품

蜀窑: 쓰촨(四川) 지방에서 구운 당대(唐代)의 도자기

(3)의 예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당시 ‘蜀’이 위치한 쓰촨(四川)지역에서 ‘수수’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졌거나 그 지방에서 ‘수수’가 처음으로 유입, 재배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0</sup> 이시진의 《본초강목》을 보면 ‘玉蜀黍種出西土’(서쪽 지방에서 나는 종)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옥수수가 쓰촨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수수가 그 지역에서 자생되었든 전래되었든, 재배가 되다가 이후 수수와 외형상 유사한 옥수수가 유입되자 둘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蜀黍’ 보다는 알이 굵고 노랗다는 의미로 접두사 ‘玉-’을 첨가하여 옥수수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들보다 앞선 시기 문헌인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蜀黍(訓蒙上 6:b 黍字註)”와 “玉蜀黍 (訓蒙上 7:a 苡字註)”가 모두 나타난다.

(4) 가. 黍 기 셔 不粘者爲黍粘者爲稷又黍曰蜀黍

나. 苡 울미이 薏苡今俗呼玉蜀黍又車前草曰苳苡亦作苳

(4 가)는 《훈몽자회》에서 나타나는 ‘슈슈’의 예이고, (4 나)는 ‘옥수수’의 예이다. 《훈몽자회》에서 보이는 ‘玉蜀黍’는 ‘옥수수’가 아닌 ‘울무’를 지칭하고 있다. 결국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옥수수의 의미로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어유해》에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 라)는 《한청문감(漢淸文鑑)》과 개화기 사전에서 나타나는 자료로 ‘차조 稷(출)’자가 표기에 사용되었다. (2 가, 나)에서 사용된 한자는 “蜀, 蜀, 黍”로 이들의 한자음은 모두 “蜀[shǔ], 蜀[shǔ], 黍[shǔ]”로 동일하다. 그러나 (2 다, 라)에서 사용된 한자 “稷[shú]”는 음은 같으나 성조가 다르다. 옥수수 표기에 각각 다른 한자가 사용된 것은 다양한 중국어 방언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up>10</sup> 이와 같이 지역 이름이 새로운 단어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3.2에서 살펴볼 “江南+이 > 강냉이”의 형성과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江南”이 명확히 중국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접미사 ‘-이’가 식물군이 아닌 옥수수라는 개별 곡물을 대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마)에 보이는 '玉林'이라는 형태는 유일하게 《방언유석(方言類釋)》에 서만 나타난다. (2 가~라)는 모두 음차(音借)된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해서 (2 마)는 음차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당시 중국어에서 사용되었던 '옥수수'의 한자어 표기는 다양한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옥수수가 유입되기 이전 시기에도 중국에서는 '옥수수'와 유사한 형태의 곡물이 존재하였고 재배되었다. '기장, 수수, 조' 등의 곡물은 외형상 옥수수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의미하는 한자(黍, 高粱, 蜀黍, 稷)에 "玉-, 唐-" 등의 접사를 붙여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명칭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용어는 음차(音借)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옥수수는 '옥촉서(玉蜀黍)'가 음차된 [yùshùshǔ]의 형태로 차용되지 않았다. '蜀黍'는 중국음 [shǔshǔ]로 차용되었지만 '玉-'은 중국음 [yù]가 아닌 한국한자음 [ok]으로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옥수수'라는 새로 형성된 어휘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옥+수수]로 구분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언에 따라 '옥수꾸, 옥시끼, 옥시깁이 등' 어간에 존재하는 [k]도 옥수수가 [옥+수수]로 구분 인식되어 '수수'의 변이형이 새로운 어휘 형성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3.2. 또 다른 어휘 강녕이

'옥수수'는 한국한자음과 중국어 음차의 수용결과임을 3.1.에서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강녕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조항범(2009:303, 313)에는 '강낭콩'과 '옥수수'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있다. '강낭콩'이 [강남+콩]으로 분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녕이'는 '강남(江南)'과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강남(江南)'은 '친구따라 강남간다'나 '강남갔던 체비가 다시 돌아온다'처럼 본래 중국의 양쯔강 남쪽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때로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강남-'이라는 형태소로 형성된 복합어는 '강남두(강낭콩), 강남조, 강남죽, 강남상어' 밖에 없다. 이들 중에서 '강남두(江南豆)'에서 분석되는 '강남-'은 중국을 의미하는 형태소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지만 명백하게 중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강낭콩' 역시 '강남+콩'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후행음절의 어두음 'ㄱ'의 연구개성 자질이 선행음절 말음 'ㄱ'을 'ㅇ'으로 음운동화 자질 변경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낭콩'에서 분석되는 '강남' 또한 '중국'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강남조, 강남죽, 강남

상어'에서 분석되는 '강남-'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가. 강남조: "명사" 개맨드라미의 씨. 한방에서는 '청상자'로 불리며 강장제로 쓰인다.
- 나. 강남죽: "명사" <식물> =죽순대.
- 다. 강남상어: "명사" <동물> 강남상엇과의 바닷물고기. 몸은 길고 크며 75kg 이상이다. 지느러미, 제 2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는 거의 같은 크기이다. 지느러미는 고급 요리의 재료로 쓰며, 한국의 남해안 및 일본에 분포한다. (Pseudocarcharias kamoharai)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냉이'에서 음운현상의 적용을 소급하여 분석해야 하는 '강남-'이 중국을 의미하는 '江南-'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개 중국에서 유입된 물건을 명명할 때 '당(唐)-, 호(胡)-'와 같은 접사가 사용된다. '당추자, 당앵두, 홍당무 등'과 같이 '당(唐)-'과 함께 명명하거나 중국을 의미하는 '호(胡)-'와 같은 접두사가 붙어 '호과(胡瓜), 호(胡)떡, 호(胡)밀 등'과 같은 조어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다.

단어의 합성에서 형태소의 적용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은 이 형태소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형태소의 적용분포를 보면 '강냉이'가 '江南-'에서 음운변화규칙이 적용된 형태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중국에서 온 하나의 특정 식물(옥수수)을 지칭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온 콩"을 지역 명칭을 사용하여 '강남콩'이라고 할 때 '옥수수'라는 특정식물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 식물명이 포함되는 '강남수수'같은 어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접미사 '-이'로 특정 식물명이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1</sup> 따라서 강냉이가 결코 '강남(江南)-'과 '-이'로 간단하게 분석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 김인호(2001:176)은 '강냉이'를 강남지역의 쌀이라는 뜻으로 "강남미(江南米) → 강냉이 → 강냉이"의 변화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옥수수가 유입될 당시 '강남미'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었다면 중세나 근대문헌에 등장하지 않을 리 없을 텐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강남미'에서의 변화과정을 겪었다는 그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강남미 > 강냉이"로의 음운변화과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모음 사이에서 'ㅁ>ㅇ'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음운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sup>11</sup> 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라는 접미사가 '수수, 콩, 조, 쌀' 등의 곡물 명칭 중에서 '수수'만을 대체하게 된 이유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문헌상에서 ‘강냉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세와 근대 문헌자료에는 강냉이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선 김인호(2001)의 주장에 따라 ‘江南米’를 찾아보기로 한다. ‘江南米’는 《고려사》에 (6)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가. 元遣使運江南米十萬石來賑. <忠烈王 辛卯 17年>(1291)  
 (원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강남 지방에서 고려로 쌀 10만 석을 운반해다가 진급(賑給)하게 하였다.)

나. 元遣萬戶徐興祚運江南米十萬石來賑飢民. <忠烈王 壬辰 18年>(1292)  
 (원나라에서 만호 서흥조(徐興祚)를 파견하여 강남 지방에서 쌀 10만 석을 운반하여 다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다. 元運米十萬石來賑元將征日本運江南米十萬石置江華 <增補文獻備考 第35卷>  
 (원나라가 장차 일본(日本)을 정벌하려고 강남미(江南米) 10만 석을 운반해 와서 강화도(江華島)에 두었는데.....)

옥수수(玉蜀黍)가 근대국어시기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6)에서 보이는 ‘江南米’는 ‘옥수수’의 의미가 아니라 “강남지역에서 들어온 쌀” 정도로 해석된다. 《고려사》를 제외하고는 ‘강냉이’ 계열의 어휘가 문헌자료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후 개화기 자료에서 와서야 드디어 강냉이계 어휘가 ‘옥수수’의 의미로 등장하게 된다.

(7) 가. 강냉이 玉米 미 包米 미 <華抄:禾穀 22b>  
 나. 강냉이 玉鬚穗 玉薊 <國漢會語 11>

(8) \*각냉이 或옥슈슈 包米 <漢語指南> 菜穀 (33)

(7가)는 《화어류초(華語類抄)》에서 보이는 예이다. ‘丨’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강냉이’ 형태로 나타났다. (7나) 《국한회어(國漢會語)》에서도 음운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로 등장한다. (8)은 개화기 중국어 학습서인 《한어지남(漢語指南)》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각냉이 > 강냉이’의 비음화 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형태로 보여진다. ‘각냉이’와 같은 형태는 당시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유일한 형태이다.

《한어지남》은 1911년에 간행된 것으로 당시 국어자료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승철(1999:10)은 당시 국어 표기의 특징으로 연철, 분철, 중철, 재음소화 등 다양한 표기경향을 보여주나 분철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의 국어 표기는 음운동화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8)에서 보이는 ‘각낭’이 과도한 분철의 영향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낭 > 강낭’으로의 음운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 존재한다. 즉 《한어지남》에 나타나는 ‘각낭’이라는 형태는 ‘강냉이’의 ‘江南-’ 어원설을 재고(再考)하게 만든다. 당시 표기 규칙이 음운현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한자어는 대개 고정된 형태로 표기된다. 《한어지남》의 저자에게 ‘강냉이’의 어원이 ‘江南’이라는 한자어 의식이 남아 있었다면 과도 분철에 의해 ‘각낭-’으로 적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어지남》에 표기된 ‘각낭이’의 설명은 ‘包米’로 되어 있다. ‘包米’는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로 “여러겹의 껍질에 싸여 있는 쌀 같은 알곡”의 의미로 풀이된다. ‘각낭이’가 ‘包米’와 동의관계에 놓이고, 저자가 한자어 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각낭’은 “주머니에 쌓여 있는 곡식의 의미”로 한자어 ‘穀囊’을 표기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각낭이’와 같은 형태의 출현은 ‘강냉이’의 어원을 단순히 ‘江南-’으로만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문헌상 등장하는 ‘옥수수’와 ‘강냉이’ 어휘를 살펴보았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등장시기를 통해 이들 어휘의 발생 선후관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언어지도》에서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강냉이계’ 어휘보다 ‘옥수수계’ 어휘의 유입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4. 주변언어와의 비교

한국어에 차용된 어휘 옥수수가 주변 언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어와의 유사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옥수수의 형성과 유입경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주변언어로는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드라비다어가 있다. 이 언어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 4.1. 일본어: トウ-もろこし, トウ-きび

옥수수가 한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17 세기의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일본어와 한국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어에서 옥수수는 ‘トウもろこし’(to-morokosi、玉蜀黍) 또는 ‘トウきび’(to-kibi、唐黍)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トウ’는 “당(唐)-”을 의미하고, もろこし(唐黍・蜀黍)는 “수수”, きび(黍, 稷)는 “기장”을 의미한다. ‘もろこし’는 원래 “옛날 일본에서 중국을 이르던 말(唐土)”이었는데,

이것이 ‘수수’라는 명칭으로 전이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원래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사용되는 용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접두사로 사용된 ‘トウ(唐)-’는 옥수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徳川宗賢(1979:76-80)에 따르면 ‘もろこし’(수수)와 ‘きび’(기장)는 일본어에서 서로 혼용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옥수수의 분포를 조사해 보면 표준어인 ‘とうもろこし’보다 홋카이도에서 사용되는 ‘とうきび’의 분포가 훨씬 넓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에서는 ‘수수’와 ‘기장’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옥수수’를 일본어 어휘구조와 같이 ‘옥기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단어 구성으로만 보았을 때 일본의 옥수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もろこしの 의미도 중국에서 건너온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를 더욱 명백하게 만드는 접두사 ‘당(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옥수수에 ‘당(唐)-’이라는 접사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옥수수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에서와 같이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강남(江南)-’과 같은 형태소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옥수수’라는 어휘의 형성과정이 다르고, 한국어 ‘강냉이’는 어휘 형성의 관점에서 일본어와는 다른 독특한 구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에는 한국어에서와 같이 접사 ‘玉-’이 붙어서 형성된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본어는 “중국으로부터 온 수수”라는 의미로만 단어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강냉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4.2. 몽골어, 만주어: *erdene šiši, aiha šušu*

몽골어와 만주어에서 수수와 옥수수는 다음과 같다.

	수수	옥수수	
(9) 가.	шиш(shish)	эрдэнэ шиш(erdene shish)	小沢重男 編(1983)
나.	薯蓣	玉薯蓣	<蒙語類解下 38a>
	슈슈入대 (šušu)	얼더니 시시(erdeni šiši)	
(10) 가.		ax šušə	김주원(2009:118)
나.	高粱	玉秫	<漢清文鑑 12:64a>
	슈슈(šušu)	애하슈슈(aiha šušu)	

(9 가)는 현대몽골어, (9 나)는 《몽어유해(蒙語類解)》에서 나타나는 자료이다. 현대 몽골어에서 수수는 ‘шиш(shish)’라고 하고, 옥수수는 ‘эрдэнэ шиш(erdene shish)’라고 한다. (9 나)는 18 세기 몽골어로 현대 몽골어와 큰 차이가 없다. 몽골어 ‘수수’는 중국어음과 동일하다. 그리고 옥수수를 의미하는 ‘erdene shish’는 ‘shish’ 앞에 ‘erdene’가 덧붙여 있는 양상인데, 몽골어에서 ‘erdene’는 ‘보석(jewel)’을 의미한다. 따라서 ‘erdene shish’는 ‘보석 수수’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어의 ‘玉蜀黍’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수’에 비해 ‘玉’처럼 알이 굵고, 윤택이 나는 수수를 일컫는 말로 어휘 형성이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은 만주어 자료인데, (10 가)에는 옥수수가 조사되어 있지만 수수 항목은 조사되어 있지 않았다. 만주어에서도 수수는 ‘šušu’라고 한다. 그리고 옥수수는 ‘aiha šušu’라고 한다. 만주어 ‘수수’의 음운구조는 모음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몽골어와 유사하다. ‘옥수수’의 경우 몽골어에서 나타난 ‘erdene’대신 ‘aiha’가 덧붙여 있는 양상이다. ‘aiha’는 만주어에서 ‘유리’(琉璃)를 의미한다. 즉 ‘유리 수수’가 옥수수이고, 이는 한국어 ‘玉蜀黍’의 ‘玉’이나 몽골어의 ‘erdene shish’의 ‘erdene’와 유사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몽골어나 만주어, 그리고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수수’라는 단어는 모두 중국어와 동일한 음을 지니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옥수수’가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어에서는, ‘수수’는 음차한 그대로 ‘玉-’은 한국한자음으로 수용한 반면, 몽골어나 만주어에서는 ‘玉-’을 의미로 수용한 것이 된다. 물론 몽골어와 만주어에서 각각 다른 어휘(보석, 유리)를 사용하였지만 어휘 구조는 모두 유사하다.

그런데 몽골어나 만주어에서는 일본어에서와는 달리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의미의 ‘唐-’과 같은 접사나 한국어에서 보이는 ‘江南-’과 같은 형태소로 구성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小倉進平(1944)에서 밝혔듯이 ‘수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라 몽골이나 만주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4.3. 드라비다-타밀어: kannal

강길운(2010:61)은 강냉이에 대한 어원을 “강남(江南)-양자강 남쪽지방-에서 온 것이라는 뜻, 즉, \*kangnam(江南) + i > kangnangi > kangnäŋgi(강냉이)로 변한 것이라고 하나 의심스럽다.”고 하며 드라비다-타밀어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는 강냉이를 kannal(사탕수수, Dr-Ta)의 전용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강냉이는 ‘\*kannal > kannā āŋ > kannāŋi > kaŋnäŋi(강냉이)’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āŋ’은 ‘꼬마 + 앵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형보강소로 해석을 하였다.

강냉이의 표준어는 ‘옥수수’이다. 여기서 그는 옥수수를 ‘수수’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사탕수수’에도 ‘수수’의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와 같은 전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강냉이’, ‘옥수수’의 어원은 \*kannal(사탕수수)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주변언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옥수수와 강냉이라는 어휘의 구조와 어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동계어와의 비교로 어휘형성의 선후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옥수수계 어휘는 일본어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강냉이계 어휘는 몽고, 만주어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어휘의 형성구조는 독자적인 형성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각 언어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방언 및 문헌, 주변언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옥수수와 강냉이의 방언분포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계열이 다른 두 어휘가 동일한 의미로 같은 시기에 존재한다면 두 어휘는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비록 동의어 사이에 어느 형태가 먼저 형성되었는지 그 선후관계가 문헌상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간의 선후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고는 ‘옥수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강냉이’의 어원을 단순히 ‘江南+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의문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휘의 형성과정과 차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방언분포를 통하여 ‘강냉이계’ 어휘가 먼저 존재하였다가 ‘옥수수계’ 어휘가 등장하면서 ‘강냉이계’ 어휘의 세력이 밀려난 것으로 추정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방언 분포만으로 어휘 형성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문헌상에서는 ‘강냉이계’ 어휘보다 ‘옥수수계’ 어휘가 먼저 등장한다. 이를 통해 ‘옥수수계’ 어휘가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주변언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차용어의 수용시 어휘의 구조가 동일하게 형성됨을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1. 강길운(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2. 광충구(1995), "의미분화에 따른 단어의 형태분화와 음운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795-815.
3. 광충구(2000),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pp.1123-1166.
4.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 상>, 조선어학전서 52, 박이정.



5. 김주원 외(2009), *Materials of Spoken Manchu, Altaic Language Series 01*. SNUpress.
6. 도쿠가와 무네마사(徳川宗賢)(1979), <日本の方言地図, 中公新書 533>, 中央公論社.
7. 람스테드(Ramstedt)(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uomalais-Ugrilainen Seura*.
8. 신중진(2010), "문헌과 방언을 통해 본 '부스럼[furuncle]'의 형태사", <국어학> 57, pp.153-173.
9. 여찬영(1991), "식물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1-33.
10.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No.12)*, The Toyo Bunko.
11.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944), <朝鮮語 方言の研究(上·資料, 下·研究)>, 岩波書店. (이진호 역(2009),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2. 이광호(2010), "곡식류 어휘장의 분류 및 표기법 연구",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pp.99-121.
13. 이기문(1975), "금양잡록의 곡명에 대하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99-110.
14. 이병근(1997), "고양이(猫)의 어휘사", <국어학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15. 이익섭 외(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16. 이진호, 飯田綾織(2009), <小倉進平과 國語音韻論>, 제이앤씨.
17. 장충덕(2007), "국어 식물어휘의 통시적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정승철(1999),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pp.7-59.
19. 조항범(2009), <우리말 어원론>, 개신.
20. 최창렬(1986),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21. 최학근(1990), <增補 韓國方言辭典>, 명문당.
22.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사전류>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출판부.
2. 하네다토오루(羽田亨)(1937), <滿和辭典>, 京都帝國大學滿蒙調査會.
3. 코자와시게오(小沢重南)(1983), <現代モンゴル語辭書>, 大學書林.
4.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5. 고려사 <http://www.krppia.co.kr/pcontent/?svcid=KR&proid=1>